

「2007/2008동작물 농약 등록시험 설계심의회」 개최

HO 제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우수농약 개발을 위한 「2007/2008동작물 농약품목 등록시험 설계심의회」가 지난 7월 18일 한국작물보호협회 주관으로 aT센터에서 열렸다.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및 생장조정제 등 분야별 시험전문위원과 제조업체 기술개발 담당부장 및 부설연구소 시험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회에서는 약종별로 △살균제 41항목 △살충제 47항목 △제초제 및 생장조정제 17항목 등 총 105 항목에 대한 설계심의회가 있었으며 시험설계



내용 설명과 시험전문위원의 의견 발표가 있었다.

농과원, 외래잡초 관련 심포지엄 개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원장 김석동)은 지난 7월 19일 농업생물부 3층 강당에서 대학교수 및 관계기관,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래잡초 현황과 문제잡초의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2007 외래잡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모두 5편의 과제발표가 있었는데, 국립환경과

학원 길지현 연구사의 “외래식물 분포 및 환경위해 외래식물 현황” 과제발표를 비롯, 국립식물검역소 문광옥 식물검역관의 “우리나라 식물검역 현황”, 서울대학교 김도순 교수의 “외래잡초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방상원 박사의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농과원 오세문 잡초관리과장의 “외래잡초의 유입·확산 및 문제잡초의 관리” 등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매년 늘어만 가는 외래잡초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입을 모았다.

경농, 창립 50주년 고객사은대잔치 盛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지난 5월 15일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해온 창립 50주년 고객사은대잔치가 3만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5일로

「논제초제 지역적응성시험 현지 중간평가회」 마쳐

인 도용 제초제 등록을 위한 「논제초제 지역 적응성시험」 현지 중간평가회가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 주관으로 업계 시험담당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두 차례(1차 6월 18일~20일, 2차 7월 9일~11일)에 걸쳐 현지 시험포장에서 개최되었다.

토질과 기후조건이 다른 지역에서 농약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약효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시험은 제조회사 부설연구소 주관으로 매년 남부내륙 이모작지대 및 남서해안 간척지대 등 5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험은 또 10월말 경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농약품목 등록자료 및 라벨(포장지) 주의사항 표기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성료됐다.

이에 경농은 지난 7월 26일 작물보호협회 및 작물보호제판매협회 관계자, 자사 최용석 상무를 비롯한 마케팅본부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층 회의실에서 각 지점별 응모자 중 경품 추첨식을 갖고 당첨자 선정을 모두 마쳤다.

주요 경품 내역을 보면 대상 1명에게는 동남아 여행 상품권이, 금상 2명에는 각각 드럼 세탁기가

주어지며, 각각 TV 1대씩이 주어지는 은상 50명의 주인공도 이날 가려졌다. 또 선풍기의 주인공이 될 동상 100명은 각 지점에서 기 추첨을 통해 가려졌으며 금번 응모자 전원에게도 주방용품 가위가 주어졌다.

경농, 우수실험실운영(GLP)기관 인증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 중앙연구소가 10여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6월 29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우수 실험실 운영(GLP, Good Laboratory Practice)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경농, 창립 50주년 맞아 기념행사 가져

7.12~13 무주리조트서, 미래 도전·도약 다짐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농업발전을 위해 1957년 경북농약공사로 출발한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지난 7월 12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기념식을 갖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다짐하였다.

이날 열린 창립5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병만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현재 우리농업은 FTA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요구 등으로 농업경제의 상당한 변화는 물론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창조와 혁신을 통한 경농만의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 활



동과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이날 기념식과 함께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과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고,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 비전을 담은 타임캡슐 전달식과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게임 및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번 GLP인증에 따라 (주)경농 중앙연구소에서 생산된 독성자료는 국내뿐만 아니라 OECD 등 선진외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주)경농은 환경생태영향시험분야 중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에 대한 GLP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향후 “물벼룩 급성 유영저해시험”, “꿀벌 급성독성시험”, “조류 생장저해시험” 등 환경생태계 전반의 분야로 기관 인증을 확대, 국내·외 농업 환경보존을 위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안전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GLP는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실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을 조직적이고 보다 체계 있게 관리하는 국제적인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농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문의 054- 779-1000).

동부하이텍, 일부 조직개편 단행

(주)동부하이텍(대표이사 차동천)이 지난 7월 23일 친환경자재사업부 판매팀과 고객협력팀을 작물보호사업부로 흡수 통합하는 등 일부 조직을 개편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부문 친환경자재사업부

신젠타, 송곡 복숭아작목반과 자매결연 맺어

신젠타 코리아(주)(대표이사 스티븐 호킨스)가 지난 7월 10일 경기도 동부 과수농협 송곡 복숭아작목반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한 농촌사랑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신젠타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전통을 지닌 경기 과수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힘을 합쳐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사랑 운동을 본격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촌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점별 병해충 방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턱없이 부족한 일손 돕기와 각종 마을행사 참여 등 도농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문의:1566-3889).

소속 판매팀과 고객협력팀을 폐지하는 대신, 작물 보호사업부 소속 친환경자재사업팀으로 편제(編制) 변경하여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친환경자재 사업과 관련된 영업전략 및 목표관리는 친환경자재사업팀에서 계속 관할하게 된다.

바이엘 누뎀社, 한국종묘사 씨덱스(SeedEx) 합병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산하의 네덜란드 소재 누뎀社가 지난 7월 13일 고추와 양배추 종자만을 전문으로 육성, 판매하는 한국의 종자회사 씨덱스(주)의 인수합병 완료를 발표했다.

이번 합병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누뎀의 활동이 강화될 것임은 물론 아시아 시장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의 성장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작물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종자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물로 씨덱스의 육성기술과 누뎀의 글로벌 마케팅 능력이 합쳐질 경우 새로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씨덱스의 육성 경험과 기술에 누뎀의 첨단 생명공학적인 기술, 연구, 그리고 많은 자본투자 등이 합쳐질 경우 새로운 우량품종 육성에 또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뎀의 다우 집(Douwe Zijp) 사장은 "씨덱스의 합병은 아시아에서의 고추와 양배추 종자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기대를 표했다.

누뎀(Nunhems)은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산하의 채소종자를 육성 판매하는 회사로 특히 채소종자 부문에서 세계적인 전문 기업으로 우수한 제품과 전문지식을 전문적인 원예 생산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